

#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서영임\*  
아이맘상담센터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설명력과 함께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중 초1 패널의 제 7차년도(2016년 기준으로 중1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총 2,001명을 대상으로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및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행동통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행동통제의 문제가 많을수록 학교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동통제는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주의집중, 행동통제, 학교적응, 청소년

## ■ 서론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교라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개인적 삶의 욕구 충족을 위해 자신과 환경 간 변화를 주고받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기 위한 적절한 규칙·규범들을 익혀나가고, 학년이 새롭게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또래 및 교사들과 만나며 새로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게 된다. 또한 다양한 교과 활동들에 참여하며, 성공적인 진로 선택과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으로써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은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권순용, 2006; 김종범, 2009; 송운용, 곽수란, 2006). 특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다른 대안적 삶을 찾는 데 있어 학교 이외에 공간이나 방법들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은 또는 학교적응은 개인적·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다(이난, 2019). 이처럼 학교적응은 학업성취나 여러 규범들을 배우는 것 뿐 아니라 또래나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배워나감으로써 청소년기의 건강한 삶은 물론, 이후 성인기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명주, 2001; 홍정미, 2008). 반면에 학교생활의 적응 실패는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문제, 학업에서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필요한 규범들이나 기능의 습득을 어렵게 하여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전재일, 전현주, 2007; 정미영, 문혁준, 2007; Chen, Chang, He, & Liu, 2005). 이러한 스트레스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과 같은 사회적 이슈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약물 중독, 자살, 우울증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이미정, 2006).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자

퇴한 학생이 10,7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교육통계연보, 2018).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시사된다.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연구들은 학교적응을 학업적인 적응 측면 외에도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여 학교적응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으며(성미영, 장영은, 서병태, 2016; 이정남, 2008; 정옥분, 2006), 이러한 이해와 함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요인들 간 관계를 탐색하여 밝히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학령기의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사회·정서적 문제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매우 급격한 발달과 함께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과 더불어 많은 갈등을 경험하여 정서·행동 문제의 취약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Michael & Erika, 2006) 정서·행동 문제의 요인 중 하나인 주의집중 요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는 사회적 기술, 교실적응 및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aker, 2006), 학교생활 중 교사와의 관계 형성은 물론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uhs, Ladd, & Herald, 2006; Henricsson & Rydell, 2004). 특히 주의집중 문제가 학교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주의집중을 잘하는 경우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몰두는 물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김정민, 송수지, 2014). 또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살펴봤을 때, 학업에서의 어려움과 함께 우울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형숙, 2009; Herman & Ostrander, 2007; Wu & Gau, 2013).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김민주, 하은혜, 2013; 최진오, 2010; Denham & Brown, 2010; Raver & Knitzer, 2002), 이는 주의집중의 문제를 가진 경우 과제나 상대방의 단서들에 집중하여 의미 있게 해석해내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이다(신현숙, 2009). 또한 주의집중의 어려움으로 사회적 기술을 관찰학습 할 기회가 제한된다(Hoza, 200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 주의집중이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집중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어지는 과제들이나 상황들을 능동적으로 성취해나가면서 성공을 경험하여 내재적 자산을 가지는 것은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이다(김은영, 2014). 청소년의 경우 학업적 성공이나 실패의 경험이 자기효능감은 물론 삶의 동기에도 영향을 미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빈, 2008). 이러한 학습습관은 시험이나 성적과 같은 학업적 측면에서만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자기주도적인 탐구적 동력과 관련이 있다(김서현, 임혜립, 정익중, 2017). 이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학업시간 자체를 스스로 관리하는 행동을 의미하며, 학교생활의 적응과 목표 성취에 행동통제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행동통제는 자기조절, 자기통제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선

행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자신감이 있는 경우 자기통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래 및 교사와의 적절한 관계를 포함하여 보다 적응적인 학교생활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을 예상할 수 있다(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적응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대인간의 문제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gney, Baumeister, & Boone, 2008). 여러 연구에서 자기조절능력이 학교에서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보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동통제 또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교생활의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의집중과 행동통제 두 요인 간의 관계 또한 탐색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일수록 행동통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배장섭, 201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 문제 수준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밝혀, 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냈다(김아름, 윤안순, 2018).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주의집중의 수준에 따른 자기조절 및 통제와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주의집중과 행동통제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밝혀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주의집중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한다(김민주, 하은혜, 2013; 최진오, 2010; Denham & Brown, 2010; Hoza,

2007; Raver & Knitzer, 2002). 하지만 주의집중 문제의 수준에 따라 학교적응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행동통제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잠재적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 중 학교적응의 경우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들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이귀옥, 이미리, 2013; 정미영, 문혁준, 2007),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밝히고 청소년의 행동통제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상대적 설명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주의집중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3.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 방법 및 절차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KCYPS: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중 초1 패널의 제 7차 년도(2016년 기준으로 중1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2차 자료 연구이다.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전국적으로 수행된 조사이기에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초1 패널의 제 7차 년도(2016년 기준으로 중1 패널)의 전체 사례 2,342명 중 응답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사례를 제외한 2,0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1명 중 남학생은 1,039명, 여학생은 962명이었다.

## 2. 연구도구

### 1) 주의집중

본 연구에서는 주의집중을 측정하기 위해 조봉환과 임경희(2003)가 개발한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에서 중복문항을 제외하고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척도 중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7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매우 그렇다”, 4점=“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2으로 나타났다.

### 2) 행동통제

본 연구에서는 행동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양명희(2000)의 자기조절 학습능력 측정도구 84문항 중, 한정선과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에서 학습에 대한 기본 태도와 관련이 깊은 동기조절과 행동조절 관련 문항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척도 중 행동통제를 측정하는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통제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부 시간에 딴 짓을 한다”는 문항과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문항은 역채점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73으로 나타났다.

### 3)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민병수(1991)가 제작한 초등학교용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정화실, 2009에서 재인용) 중 학교행사 관련문항(5문항)을 제외하고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4개의 하위변인이 있으며, 학습활동 5문항, 학교규칙 5문항, 교우관계 5문항, 교사관계 5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1점= “매우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문항과 “나는 공부를 하려면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는 문항은 역채점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방법

최종 수집된 자료들은 SPSS WIN 21.0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자료 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빈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및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성별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주의집중과 행동통제를 투입하였고, 3단계에서는 주의집중과 행동통제의 상호작용을 투입하여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주의집중과 행동통제 점수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집단(+1SD)과 하집단(-1SD)으로 나누어 도식화 한 후 단순기울기 검정을 실시하였다.

## II 결과

### 1.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주의집중, 행동통제, 학교적응의 차이

본 연구의 기초 통계 자료로 각 변인들의 전체 총점, 하위 요인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학교적응( $t=-.86, p<.05$ )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습활동( $t=1.19, p<.05$ )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교우관계( $t=-1.96, p<.05$ )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인들의 기술 통계

(N=2001)

변인	Min	Max	M	SD	
주의집중	7	28	20,21	3,95	
행동통제	5	20	13,54	2,70	
학교 적응	학습활동	6	20	15,06	2,67
	학교규정	5	20	16,00	2,52
	교우관계	8	20	16,21	2,12
	교사관계	5	20	15,68	2,95
학교적응 총점	32	80	62,94	8,20	

〈표 2〉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

(N=2001)

구분	남 (N=1039)	여 (N=962)	t
	M(SD)	M(SD)	
주의집중	19,97(3,98)	20,47(3,91)	-2,84
행동통제	13,67(2,67)	13,39(2,72)	2,36
학교적응(전체)	62,79(8,44)	63,10(7,93)	-.86*
학습활동	15,13(2,76)	14,99(2,56)	1,19*
학교규정	15,81(2,61)	16,19(2,39)	-3,46
교우관계	16,12(2,19)	16,31(2,04)	-1,96*
교사관계	15,73(2,89)	15,61(3,01)	.90

\* $p < .05$ 

## 2.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의 실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각 변인들 간 관계 파악을 위한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의 실시 후, 학교적응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학교적응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또한 더미 변수로 성별을 추가 투입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91로 2

에 가깝게 나타나 잔차의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분산팽창요인(VIF)은 1.331로 모두 10이하이고, 공차한계는 .751로 각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분석 결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설명하는 변인은 행동통제( $\beta = .453, p < .001$ ), 주의집중( $\beta = .206, p < .001$ )의 순서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통제는 31%의 설명력을 가지며( $F = 895.376, p < .001$ ), 이에 주의집중이 3%( $F = 517.39, p < .001$ )의 설명력을 각각 추가하여 총 3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F = 517.39, p < .001$ ).



〈표 3〉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N=2001)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학교적응	1	행동통제	1.38	.45***	.31		895.38***
	2	주의집중	.43	.21***	.34	.03	517.39***

\*\*\* $p < .001$

### 3. 청소년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 대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검정 결과, D-W 계수는 1.980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잔차항 간의 상관성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공차한계는 .73-1.00으로 .1이상이고, 분산팽창계수는 1.00-1.36으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 성별을 투입한 후, 2단계에서 주의집중과 행동통제를 투입한 결과, 학교적응의 총 변량 중 3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주의집중과 행동통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했을 때 학교적응에 대한 설명력은 1% 증가하여 총 3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beta = .45, p < .001$ ). 즉, 청소년의 행동통제가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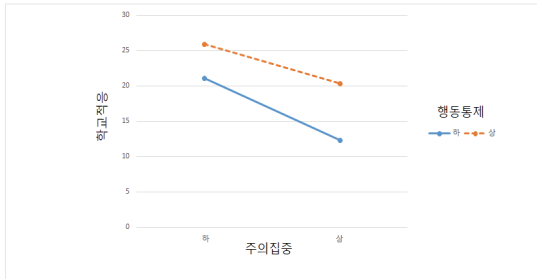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의집중 점수와 행동통제 점수 각각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집단(+1SD)과 하집단(-1SD)으로 나누어 도식화한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의집중 수준이 낮을 경우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적은 집단이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많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적게 경험하는 반면, 주의집중 수준이 높을 경우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많은 집단이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적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정 결과,

〈표 4〉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N=2001)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B	$\beta$	R <sup>2</sup>	$\Delta R^2$	F
학교적응	1	성별	-.135	-.008	.19		229.47***
		성별	.50	.03			
	2	주의집중 (A)	.42	.20***	.34	.15	346.16***
		행동통제 (B)	1.39	.46***			
	3	성별	.45	.03			
		주의집중 (A)	.40	.19***	.35	.01	268.06***
		행동통제 (B)	1.36	.45***			
		A × B	.06	.09***			

\*\*\* $p < .001$

행동통제 문제가 높을 때( $\beta=.43, p<.001$ )와 낮을 때( $\beta=.15, p<.01$ ) 모두 단순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의집중 하집단과 상집단의 행동통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학교적응의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청소년의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

## ■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주의집중과 행동통제의 상대적 영향력과 함께 주의집중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행동통제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들을 기초로 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에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습활동에서는 남학생이, 교우관계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의 차이를 보이며,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학교적응을 나타내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이귀옥, 이미리, 2013; 정미영, 문혁준,

2007). 이는 여아가 동년배 남아보다 신체적·정신적 성숙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경험하는 차이를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Shaffer & Kipp, 2013). 하지만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성별의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가 좀 더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은 행동통제로 밝혀졌다. 이는 행동통제의 문제가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통제가 자기조절 및 자기통제의 의미를 내포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의 적응적인 생활과 관련 있는 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이라 밝힌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으며(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Tangney et al., 2008), 학교에 적응적인 학생의 경우 자기통제능력이 있다는 결과(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셋째, 청소년의 주의집중은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학업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관된 결과(Baker, 2006)를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의집중이 학업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민주, 하은혜, 2013; 김형숙, 2009; 신현숙, 2009; Herman & Ostrander, 2007; Wu & Gau, 2013). 이는 주의집중이 학업적인 성취나 학습태도뿐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기술을 익히고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김정민, 송



수지, 2014; Hoza, 2007) 학업적 측면과 관계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학교적응이라는 요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행동통제는 주의집중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 수준이 낮은 경우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적은 집단이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많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의 어려움도 적게 경험하는 반면, 주의집중 수준이 높은 경우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많은 집단이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적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의 어려움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주의집중의 수준이 학교적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통제의 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행동통제는 적절한 목표에 맞게 동기적·행동적으로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에서의 상황 및 주어지는 학업적 과제들을 용이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학습의 목적과 가치를 인지하고 그것을 도달할 수 있도록 주의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다(양명희, 2000).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주의집중보다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드러났으므로, 청소년의 적응적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동기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에게 학업적 성취를 돕기 위한 개

입뿐 아니라 행동통제의 동기적이고 자기조절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행동 및 습관에 대한 적절한 조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입의 초점을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스스로 성취나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주의집중 수준에 따라 행동통제 문제의 촉진 또는 억제 여부를 고려하여 예방 교육 및 치료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패널 데이터 대상은 2016년도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현시점과 모든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임상적 진단 기준을 만족할 만큼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응으로 인해 임상적 증상을 보이는 집단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 시 확대 해석 및 논리적 비약의 가능성에 유의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후속 연구에서 학교적응의 어려움 수준 및 증상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의 집단에 따라 변인들 간의 관계의 양상이 어떠한지 구체적인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 1학년은 선택적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적응 요인에서 진로 선택의 영역이 추가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선택 영역을 고려한 학교적응 요인을 구성하여 보다 실제적인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권순용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4(3), 329-349.
- 김민주, 하은혜 (2013). 청소년의 ADHD 증상이 또래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2), 313-330.
- 김서현, 임혜림, 정익중 (2017).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이용만족이 학습습관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통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7(47), 119-146.
- 김아름, 윤안순 (2018).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 간의 관계: 주의집중 문제를 통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1), 969-990.
- 김영빈 (2008). **학업우수 고등학생의 학업서열 변화와 자아개념, 정서, 실패내성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 (2014). 학습습관과 정서문제가 초등 6학년 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1(2), 1-22.
- 김정민, 송수지 (2014). 중학생의 주의집중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5(1), 5-27.
- 김종범 (2009).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부적응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6(2), 25-48.
- 김형숙 (2009). ADHD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질적 연구: 부모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7, 61-98.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09).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친구관계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281-292.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명주 (2001). **아동의 정서지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장섭 (2017). 부모양육행동, 정서문제 및 삶의 목표가 청소년의 학습습관에 미치는 영향. **뇌교육연구**, 19(23), 51-71.
- 성미영, 장영은, 서병태 (2016).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유형을 예측하는 학습습관과 정서행동 문제의 역할.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79-102.
- 송운용,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체계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8(3), 107-129.
- 신현숙 (2009). 아동의 주의집중 문제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6(8), 27-47.
- 양명희 (2000). **자기조절학습의 모형 탐색과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남 (2008).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211-224.
- 이귀옥, 이미리 (2013).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개인, 가족, 학교 변인 탐색. **한국생애학회**, 3(1), 13-28.
- 이난 (2019). 청소년의 학습습관, 정서문제 및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의 구조관계. **교육종합연구**, 17(3), 1-22.
- 이미정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재일, 전현주 (2007).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의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13(2), 225-256.
- 정미영, 문혁준 (2007).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8(5), 37-54.
- 정옥분 (2006).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화실 (2009). **초등학생의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봉환, 임경희 (2003). 아동의 정서·행동문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29-746.
- 최진오 (2010). 초등학생들의 ADHD 성향과 학교유대성 간의 관계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2(3), 179-198.

- 한정선, 김세영 (2006).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인터넷 활용 유형, 자기 통제력, 자기조절학습 능력 및 학업성취도의 차이.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2(2), 161-188.
- 홍정미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Baker, J. A. (2006).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3), 211-229.
- Buhs, E. S., Ladd, G. W., & Herald, S. L. (2006). Peer exclusion and victimization: Processes that mediate the relation between peer group rejection and children's classroom engagemen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8(1), 1-13.
- Chen, X., Chang, L., He, Y., & Liu, H. (2005). The peer group as a context: Moderating effects on relations between maternal parenting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Chinese children. *Child development*, 76(2), 417-434.
- Denham, S. A., & Brown, C. (2010). "Plays nice with others": Social-emotional learning and academic succes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21(5), 652-680.
- Henricsson, L., & Rydell, A. (2004).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Teacher-child relations and self-perception. A prospective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50(2), 111-138.
- Herman, K. C., & Ostrander, R. (2007). The effect of attention problem on depression: Developmental, academic, and cognitive pathway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22(4), 483-510.
- Hoza, B. (2007). Peer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8), 719-727.
- Michael, R., & Erika, K. (2006). The relation between dimensions of attachment and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problem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7(1), 47-63.
- Raver, C. C., & Knitzer, J. (2002). *Ready to enter: What research tells policymakers about strategies to promote social and emotional school readiness among three-and four-year-old children*. NY: National Center for Children in Poverty.
- Shaffer, D. R., & Kipp, K. (2013).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Cengage Learning.
- Tangney, J. P., Baumeister, R. F., & Boone, A. L. (2008). High self-control predicts good adjustment, less pathology, better grades, and interpersonal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72(2), 271-324.
- Wu, S. Y., & Gau, S. S. (2013). Correlates for academic performance and school functioning among youths with and without persisten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34(1), 505-515.

원고 접수일: 2019. 11. 16

수정원고 접수일: 2019. 12. 07

게재 결정일: 2019. 12. 08

**인지행동치료상담연구**

Korean Association of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Counseling  
2019, Vol. 1, 31-42

## **The Effects of Adolescents' Concentration on School Adaptation: Moderating Effect of Behavioral Control**

Seo, Yeong Im (Imom Counseling Cen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influences of adolescents' concentration and behavioral control concerning school adaptation. It is also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behavioral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school adaptation. For this study, a total of 2,001 adolescents were surveyed using the 7th year data of the first panel (middle panel as of 2016) of the Korean Child Youth Panel Survey (KCYPS)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was analyzed by average, standard deviation, frequency analysis,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n SPSS Win 21.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havior control was a significant predictor significant predictors of adolescents' school adaptation. Second, behavioral control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ncentration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 Concentration, Behavioral Control, School Adaptation, Adolescents*